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논의

전북자치도, 신규 지역책임의료기관 간담회 예수병원·원광대병원·정읍아산병원 등 3곳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1일 신규로 지정된 지역 책임의료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7일 오후 3시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신규로 지정된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전주권 예수병원 △익산권 원광대학교병원 △정읍권 정읍아산병원이다.

이로써 △권역 책임의료기관 전북대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 △군산권 군산의료원 △남원권 남원의료원과 함께 이번엔 지정된 3개 의료기관까지 모든 진료권의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돼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협력체계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공공보건의료 전담 부서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과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신규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입, 퇴원환자 지역 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필수의료협체제를 구성하고 각종 정부 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이번 신규 책임의료기관 3곳이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충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1일 신규로 지정된 지역 책임의료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7일 오후 3시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함에 따라 도내 필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정우 전북자치도 보건의료과장은 "이번 신규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민간 의료기관에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민관이 함께 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기회"라면서, "기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보건소 등과 연계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도민들에게 차질 없는 필수의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원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이원 고택.

“몸과 마음 치유에는 전북이 으뜸이에요”

도, 2024년 전북형 치유관광지 10개소 신규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기 위해 치유관광지 10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지난 3월 2024년 전북형 치유관광지 10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지속적으로 치유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2023년 전북형 치유관광지 10개소를 선정해 이어, 올해도 10개소를 신규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추진했다.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1차 서류 및 발표평가, 2차 현장평가 후 최종심의를 거쳐 △자연·치유 △힐링·명상 △한방 △전통·생활문화 △치유음식 등 5개 테마에서 총 1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자연 속에서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자연·치유 테마' 관광지로는 정읍의 내장산 생태탐방원, 진안의 전북권 환경성질향 치유센터, 고창의 국립 고창 치유의 숲과 삼드림 총 4개소를 선정했다.

명상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는 '힐링·명상 테마' 관광지로는 무주의 태권도원을 선정했고, 한방이라는 자원을 통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한방 테마' 관광지로는 원주의 구이안력 건강힐링체 협마를 선정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한옥에서 휴식할 수 있는 '전통·생활문화 테마' 관광지로는 익산의 합라한옥체험관, 완주의 봉강요와 아원고택 총 3개소를 선정했다.

올해는 특별히 글로벌 및 국내외 치유관광 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치유음식 테마'를 신규 개발하고 관광지를 선정했다.

'치유음식 테마' 관광지로는 지역 내 특산물 또는 자연재료를 활용해 건강을 증진하고 음식으로 테라피를 제공하는 순창의 쉼랜드를 선정했다.

도는 선정된 치유관광지 10개소를 맞춤형 컨설팅과 치유 콘텐츠 고도화 및 상품화, 국내외 홍보마케팅 등 다양하게 지원해 내실있는 치유관광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5년까지 10곳을 더 선정해 전북형 치유관광지 총 30곳을 선정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차별화된 치유관광지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전북을 찾아오는 타도 및 외국인 많은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편의제공과 편안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진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치유관광지를 통해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최상의 휴식과 힐링 경험을 제공하도록 전북형 치유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건축설계 공모... 14일 참가접수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디어교육·체험 등을 통한 도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의 건축설계공모를 실시한다.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는 총사업비 295여원을 투자해 전주 만성지구에 연면적 5,800㎡, 지상5층 규모로 2024년 말 착공해 2026년 연내에 준공할 계획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는 다목적공개홀, 방송제작실, 미디어체험관 등이 구성되며 특별히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운영사무실과 콘텐츠코리아랩 사업공간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본 사업의 건축설계공모는 5월 14일 까지 참가접수를 받고 현장설명회와 질의응답을 거쳐 6월 17일 작품접수를 받는다.

작품심사는 6월 26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건축분야 대학교수, 건축사, 미디어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당선작이 선정된다.

이남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전북자치도의 미디어 저변확대를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축설계공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팀(063-280-3381)에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7일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상황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 위해 노력해달라”

최병관 행정부지사, 도민안전 점검 위해 119 종합상황실 방문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가 김관영 도지사의 중구 투자유치 등을 위한 장기출장으로 인한 부재에 따라 도민안전 점검을 위해 7일 119종합상황실을 방문, 상황관리체계를 점검하고, 365일 도민들을 위해 일하는 상황실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운영 현황에 대해 정취한 후 상황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았다.

최 부지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내리는 비 소식에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소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지사는 상황실 직원들에게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365일 최선을 다해줘 고맙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고창 해리-부안 도로시설 개량공사 완료... 오늘 개통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차로 국도 개량사업인 '국도22호선 고창 해리-부안 도로시설개량공사'를 완료하고, 8일 오후 4시에 개통한다.

이 도로는 고창군 심원면 공산리~아산면 삼인리를 잇는 10.3km 구간으로 총 518여원이 투입됐다.

개통하는 국도22호선 해리-부안 구간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선형개선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